

인권소식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제 210 호

1986.8.7.

【오늘의 말씀】

야훼여, 바른 판결을 내려주소서. 사람의 마음 속, 뱃속을 헤쳐 보시는 공정한 하느님, 악한 자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하시고 무죄한 사람들은 뒷받침해 주소서. (시편 17:8-9)

아래의 글은 「부천시 성고문사건」 소식에 충격을 받은 한 시민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000번 호사에게 7월 25일자로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저는 얼마전에 「여대생추행사건」의 고발지를 읽어 보았습니다. 신문의 한귀퉁이 조그맣게 기사화하는 그날부터 조금씩 괴롭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그 괴로움이 눈덩이 같이 불어서 주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일이 처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지막일 것이라고도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또 저는 이 일이 검찰의 발표로 끝나 그저 사람들의 기억속의 한토막으로 남는다면 하는 불안으로 매일 신문을 들여다 보고 살펴보지요. 이일은 결단코 확실히 밝혀야 할 일이며,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파헤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발장을 읽고 그충격으로 잠을 자지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왜 나는 이나라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두 딸을 낳았는지 오로지 괴로울 뿐입니다. 권양을 위하여 기도를 하려면 눈물이 앞서고 목이 메입니다. 용기있는 권양과 고마우신 변호인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마나 바쁘실까는 짐작이 갑니다만 권양을 위하여, 이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 주십시오. 꼭 밝혀 주셔야 합니다. 검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을수 있는 발표를 선생님의 입을 통하여 듣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신문을 펼치는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선생님의 건강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실것을 기도합니다.

1986.7.25 한 O O

아래의 호소문은 부천시 성고문사건 권양의 부모들이 검찰의 사건 발표 후 7월 20일자로 강원도 진부면 속사리에서 발신하여 신문사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던 내용의 전문이다.

이편지는 7월 24일 본 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발표해 오지 않았으나 8월 5일 법사위원회에서 민정당 국회의원이 부천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는 도중 이 호소문을 인용하였고 저녁 T.V 에는 전문이 발표되었기에 공개한다.

호 소 문

저는 이른바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으로 물의를 이르킨 권OO의 애비되는 권영출입니다. 불미한

한국의 민주화 진전은 거리의 대결이 아닌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세력은 "폭력의 사용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무성은 "미국은 평화로운 집회권리에 대한 어떤 침해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주교도소 내 양심수 2명 자살기도

85년 7월 18일 '민주위' ('깃발')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안병룡씨 ()가 교도소측의 극렬한 인권침해에 항의, 6일 음독자살을 기도하였으며 김진한()씨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기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중태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구속자 가족들과 조승형변호사는 7일 새벽 원주교도소로 떠났다.

원주교도소 수감중인 양심수들은 지난 7월 18일 원주교도소 보안과 주임의 부당한 구타에 항의하여 최성일씨(민정연수원 점거사건으로 구속,) 등 3명을 대표로 하는 「재소자 권익 쟁취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재소자 권익 보장하라"등을 주장하며 소내 투쟁을 계속 전개해 왔었다.

한편, 청주교도소에서도 지난 6월 26일 교도소내 차별대우 시정, 면회 제한 철폐 등의 정당한 주장을 했다하여 7명이 무차별 폭행과 전신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에 항의하던 오맥균씨(4.27 관련)가 발바닥에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6월 29일에는 김재수씨와 유영길씨가 동맥절단을 시도, 중상을 입었었다.

성공회 서울교구 및 정의실천 사제단, 철야농성가져

대한성공회 정의실천 사제단(주교:김성수(시문))은 2일오후 3시부터 성공회대성당에서 7.27 성고문 규탄기도회 방해에 따른 경찰의 성직자폭행 및 사제관 난입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각 교회에서 성고문 및 폭력추방, 시국문제에 대한 기도를 매일 갖도록 요청키로 한다. △15일에는 서울대성당에서 전체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1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한 철야기도 및 농성에 많은 성직자들이 참여, 지원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회의를 마친후 대한성공회정의실천사제단 등 5개단체 명의로 된 「살인·강간정권의 야만적 폭력성을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현 군사독재정권은 지난 7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성고문규탄 기도회 및 폭로대회를 잔인한 폭력으로 저지하려 하였으며, 심지어는 성직자를 폭행하고 신도 및 시민들을 연행·폭행하는 마수를 또 다시 드러내었다."고 규탄 하였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매판자본과 결탁하고 민중을 기만하고, 이 땅의 모든 민주화운동을 폭력과 고문으로 말살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당에 난입·기물을 파괴하고, 성직자를 폭행한 폭력경찰 및 관련책임자를 색출, 파면하라 등 4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대한성공회 민주화실현 청년협의회는 「교우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지난 27일 성공회폭행사건(인권소식 209호 참조)에대해 "이 모든 것은 이제껏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과 성고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선교와 성자의 양심적인 행위도 폭력으로 감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저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현지의 민주화일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국민들에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저들의 악행은 79년 YH사건 당시 김경숙양을 추락사하게 만든것이 상징적으로 박정권의 종말을 갖고 온것처럼 현재의 성고문은 현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의로운 소명을 다하기 위해 섰는 싸움에 끝까지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교우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교구 사제단 25명의 신부는 회의가 끝난후 대한성공회 정의실현 청년협의회 소속 청년 약 40

한국의 민주화 진전은 거리의 대결이 아닌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세력은 "폭력의 사용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무성은 "미국은 평화로운 집회권리에 대한 어떤 침해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주교도소 내 양심수 2명 자살기도

85년 7월 18일 '민주위' ('깃발')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안병룡씨 ()가 교도소측의 극렬한 인권침해에 항의, 6일 음독자살을 기도하였으며 김진한()씨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기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중태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구속자 가족들과 조승형변호사는 7일 새벽 원주교도소로 떠났다.

원주교도소 수감중인 양심수들은 지난 7월 18일 원주교도소 보안과 주임의 부당한 구타에 항의하여 최성일씨(민정연수원 점거사건으로 구속,) 등 3명을 대표로 하는 「재소자 권익 쟁취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재소자 권익 보장하라"등을 주장하며 소내 투쟁을 계속 전개해 왔었다.

한편, 청주교도소에서도 지난 6월 26일 교도소내 차별대우 시정, 면회 제한 철폐 등의 정당한 주장을 했다하여 7명이 무차별 폭행과 전신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에 항의하던 오맥균씨(4.27 관련)가 발바닥에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6월 29일에는 김재수씨와 유영길씨가 동맥절단을 시도, 중상을 입었었다.

성공회 서울교구 및 정의실천 사제단, 철야농성가져

대한성공회 정의실천 사제단(주교:김성수(시문))은 2일오후 3시부터 성공회대성당에서 7.27 성고문 규탄기도회 방해에 따른 경찰의 성직자폭행 및 사제관 난입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각 교회에서 성고문 및 폭력추방, 시국문제에 대한 기도를 매일 갖도록 요청키로 한다. △15일에는 서울대성당에서 전체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1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한 철야기도 및 농성에 많은 성직자들이 참여, 지원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회의를 마친후 대한성공회정의실천사제단 등 5개단체 명의로 된 「살인·강간정권의 야만적 폭력성을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현 군사독재정권은 지난 7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성고문규탄 기도회 및 폭로대회를 잔인한 폭력으로 저지하려 하였으며, 심지어는 성직자를 폭행하고 신도 및 시민들을 연행·폭행하는 마수를 또 다시 드러내었다."고 규탄 하였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매판자본과 결탁하고 민중을 기만하고, 이 땅의 모든 민주화운동을 폭력과 고문으로 말살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당에 난입·기물을 파괴하고, 성직자를 폭행한 폭력경찰 및 관련책임자를 색출, 파면하라 등 4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대한성공회 민주화실현 청년협의회는 「교우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지난 27일 성공회폭행사건(인권소식 209호 참조)에대해 "이 모든 것은 이제껏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과 성고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선교와 성자의 양심적인 행위도 폭력으로 감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저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현지의 민주화일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국민들에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저들의 악행은 79년 YH사건 당시 김경숙양을 추락사하게 만든것이 상징적으로 박정권의 종말을 갖고 온것처럼 현재의 성고문은 현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의로운 소명을 다하기 위해 섰는 싸움에 끝까지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교우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교구 사제단 25명의 신부는 회의가 끝난후 대한성공회 정의실현 청년협의회 소속 청년 약 40

성고문사건 관련 항의시위 박은미양 구속집행정지

지난 7월 28일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 허위 발표 등에 항의하며 인천지검 복도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중 하반신 2도의 화상을 입고 학익동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은미양 ()이 8월 4일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받고 중앙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한편 지난 2일 박양의 치료문제와 관련 NCC 인권위 금 영균부위원장 등 3명은 인천지검과 교도소와 도경국장 등을 방문해 박양의 입원치료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요구했었다.

NCC 인권위원회는 7월 31일 오전 8시100주년회관에서 위원회를 열고 박양이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감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8월 2일 김재열·금영균·조승혁위원들이 인천지검을 방문하여 검사장의 접견을 요구했으나 출타중이라고 하여 김현철, 검사차장과 만나 인도적인 견지에서 박양을 입원·치료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차장은 박양이 8월 1일자로 구속·송치 되었고 따라서 구치소 의무과장의 의견에 따라 •교도소 내 의무실 치료 •외부통원 치료 •구속 집행 정지 •구속취소 등 4가지 중 택일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또 세 위원들은 이상수변호사와 함께 학익동 소년 교도소를 방문하였으며 도경국장을 방문해 인도적 처리를 요구했었다.

【 박양 변호인들, 「구속취소 신청서」 내 】

황인철·이상수변호사 등은 8월 1일 박은미양에 대한「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들은 이 신청서에서 "피의자의 용태는 합병증의 징후까지 엿보여 생명의 위독까지 걱정되는 위급한 상태라 여겨집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과거의 영장집행실패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일로서 심히 부당하게 생각됩니다."라며 향후 교도소내 의무실에서 응급 치료만을 받다가는 합병증이 병발하여 생명자체에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취소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라도 내려주시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었다.

성고문 교련자 엄중처벌해야 -미 국무성 성명발표

(워싱턴 - 30일 AP)미 국무성은 29일 체포된 한 항의자가 경찰에 의해 구타된 "신빙할만한 주장"이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감자에 대한 그 같은 처사에 우리는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혹사를 포함하는 모든 사례에서 우리는 한국정부가 법에 따라 관련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러한 인권남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성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을 통해 말했다.

"반체제의 한 여성이 구속중에 구타당하고 성고문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자 서울에서는 최근 시위가 잇달아 일어났다. 국무성은 정부검찰이 이 고문에 경찰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민을만한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가혹한 처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것보다 훨씬 심하고 포악했었다"고 국무성은 말했다.

여명과 함께 성고문및 성전난입 규탄 철야 기도회를 갖고 대성당에서 무기한 단식철야농성에 돌입하였으며 선교자유 탄압, 내무부장관의 공식사과 및 남대문 경찰서장 엄벌등을 요구하였다.

농성중 2일 청년들은 기도회가 끝난후 햇불을 들고 “독재정권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하며 남대문서로 평화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인하여 대성당정문에서 대치하다가 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농성을 무기한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성공회대성당에서 7월 27일 전경에게 폭행당해 18바늘을 꿰맨 김기호씨(EYC 실무자)가 남대문경찰서장 정보과장 남대문서 소속미상의 사복전경 수 명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고소장을 냈다.

천주교정의사회구현사제단, 민주화와 인권회복을위한 미사

천주교정의사회구현사제단은 8월 4일 오후 7시 홍제동천주교회에서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9일기도 청원미사」를 드렸다. 미사는 12일까지 9일동안 전국성당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의 강론은 안충석신부님(아현동성당)이, 미사후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검찰 허위 발표에 대한 폭로는 김상철변호사가, 상계동 173번지의 강제 철거 만행에 대한 보고는 제정구씨(천사협)가 각각 맡았다. 주민들 50여명은 오후 9시 20분경부터 교회본당 앞에서 ‘살인행위 강제철거 즉각중지하라’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이어 민교협탄압 사례보고 후 10시경 기도회가 끝났다.

상계동 세입자 가족일등은 이날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고발문」을 발표, △살인행위 강제철거 즉각 중지하라! △빈민터전 앗아가는 재개발법 철폐하라! 등 5개항을 주장했다. 또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이날 미사를 마치면서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거듭 호소한다」제하의 성명을 발표, △민주화 없이 합의개헌은 있을 수 없다. 민주화에 대한 의심없는 합의의 증거로서 정치범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과 사면·복권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것이며 성고문사건과 같은 극도의 비인간적 행위를 추방하려는 노력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서의 구속과 수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7개항을 주장했다.

불법연행되었던 권양 친구들 구속

지난 7월 5일경 성고문사건 권양의 주변 친구 혹은 선후배등 십여명이 불법 연행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연행자중 이회영·송미경·채광희씨가 7월 25일자로 정확한 사건 내막도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성동구치소와 서대문 구치소에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가족은 아직도 면회조차 되지않고 있으며 사건의 내막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충북기청협 등, 「폭력추방기도회」가져

충북 기독교청년협의회는 8월 6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120여명이 참석, 「폭력추방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청주교도소의 인권탄압사건, 신신·중원택시 조합장 부당해고 사건, 한우(주) 부당해고 사건, 기청협 의장에 대한 경찰폭력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등의 탄압사례 보고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후 가두에 진출하여 폭력추방을 위한 행진을 하였고 시내중앙로에서 성고문 고발장 등 유인물을 청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연극 관람한 노동자 해고시켜

극단 「천지연」은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산선에서 구로연투를 다룬 내용의 「선봉에 서서」라는 워크숍 공연을 했다. 그 연극관람을 했다는 이유로 부평의 「코오롱」근로자 3명이 강제 해고를 당하고 1명은 출근투쟁중이라고 한다.

유상덕씨등 6명 석방촉구 농성, 성명발표

유상덕씨(민주교육실천협 사무국장)등 6명의 불법연행, 구금과 관련 유국장의 가족, 민주교육실천협 소속교사들 등 20여명은 8월 5일부터 8일 현재까지 “민주교육 탄압중지” “유국장 등 6명 즉각석방”등을 요구하며 NCC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행자 가족일등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상덕씨등 6명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된 이 후 저희 가족들은 그동안의 상황으로 보아 또 하나의 용공조작 사건이 진행되는 듯하여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며 당국의 작성을 촉구하고 또 다시 용공조작이 자행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국장은 지난 7월 15일 안기부로 연행되었으며 그에 앞서 이병철교수(), 임석희씨() 안재학씨(), 조희정씨() 등 4명이 7일 안기부로 각각 연행되었으며 정인학씨()도 15일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이와 관련 민교협에서는 7월 15일 이후로 계속 25~30여명이 농성을 벌여왔으며 28일 민교협 명의로 ‘민주교육 탄압말라’, ‘유상덕씨를 즉각 석방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 30일에는 서울사대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성명을 발표하였고 민연협등 6개 문화단체회원 80여명이 농성을 벌였으며 6개문화단체 명의로 31일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병철교수, 임석희씨, 정인학씨등 3명은 29일자로 국보법위반혐의로 영장이 각각 발부되었다.

목동지역문제, 아직도 심각

현 투기정권의 무분별한 도시재개발 정책으로 시행된 목동공영개발은 84년 8월 27일 주민 1000여명이 양화교를 점거, 시위한 사건과 85년 3월 19일 부구청장 연금및 방화사건으로 사회문제화 되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 정권의 토지 수용령에 의한 공권력 남용과 주민의 생존권 외면, 사유재산 강탈은 지역주민들과 종교계및 온 국민의 표적이 되었었다.

그러나 아직도 목동에서는 가옥주, 토지주 18가구가 사유재산을 지키려하는 피나는 투쟁을 3년동안 벌이고 있다. 20년전부터 피와 땀으로 마련한 땅과 재산을 공영개발 협의보상이란 간판을 크게 걸어 놓고 선량한 주민의 정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심지어는 유언비어라고 하여 구류처분당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1조원이상의 이익을 남기면서 ① 14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서를 받고 토지소유자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국토건설 촉진법 20조, 21조) ②세목고시를 안하고 토지감정, 토지측량은 할수없다. ③성실한 보상협의 등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를 무시할수없다는 3가지 법조문을 무시하고 일방적통고문 형식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즉 현시가가 평당 150 - 200 만원을 훔가하는데도 감정가에 의해 평당 6 - 12 만원만 보상받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유재산의 강탈및 수탈에 저항하는 30가구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오히려 1000 가구중의 2%라하여 조롱하고 놀리고 있다고 한다.

목동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한 목동공영개발 가치분항고가 성사되도록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추녀위까지 묻혀버린 흙더미 속에서 생존의 대책을 주장하며 각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청료 거부운동 가두캠페인 계속 전개

KBS-TV 시청료 거부운동을 위한 전국 가두캠페인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시행된 것을 시발로 부산·대구·대전·당진·춘천·이리·광주 등지에서 전단과 스티카를 나누어주며 언론자유회복과 시민권리쟁취를 촉구하였다. 특히 수원에서는 7월 29일 30여분간 시내를 돌며 시위를 했고, 대전에서는 7월 27일 가두서명을 받으며 통합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고, 광주에서는 7월 29일 도청앞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맞부딪쳐서 4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경북기독교회 오정섭씨 수사의뢰 취하 불구, 계속구속중

지난 7월 27일 경북상주군 기독교농민회 회원 오정섭씨()가 상주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오씨의 구속 사유는 지난 7월 5일에서 10일까지 이 마을에서 농촌활동을 온 대학생들에 대해 이 마을의 배영국 민학교 교장인 고문산씨가 국민학생들을 시켜 이들의 언행일체를 신고케한데 항의, 규탄대회의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그후 상주 봉강마을 대학생 농촌활동탄압의 당사자인 교장이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자신이 제출한 수사의뢰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일 오씨가 상주지원에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부결시켜 계속 구속중에 있다.

KBS-TV 시청료 거부 및 부천경찰서 성고문 규탄대회 무산으로 농성-이리

이리인권선교협의회와 이리기독교청년협의회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이리역 광장에서 KBS-TV 시청료거부 및 부천경찰서의 권양 성고문 규탄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규탄대회가 시작되는 순간 1,000여명의 정·사복 경찰들에 의해 은명기목사 등 20여명의 성직자 및 청년들이 강제 연행되어 대회는 무산되었다.

연행된 성직자들이 경찰차에 탑승한채 하차를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하자 이에 놀란 경찰들은 성직자들을 실은 차를 이리 복음교회 앞에 정차시킨 후 도주하였다.

은명기목사를 비롯한 연행자들은 경찰폭력을 규탄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 참석자중 합세하여 26일밤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27일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했다가 28일 오전부터 다시 농성에 돌입해 오후 4시경 약 150여명의 목회자, 청년신도들은 “부천경찰서 성고문을 규탄한다”라고 적힌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이리경찰서를 향해 700m가량 시가행진을 하고 경찰서 앞에서 연좌하며 성고문 및 경찰폭력을 규탄, 경찰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8일 전북인권선교협등 5개 민주단체 주최로 「성고문·용공조작·폭력정권 규탄대회를 범도민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의한후 해산했다.

충북 6개민주단체, 경찰폭력규탄 성명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등 충북지역 6개 민주운동단체들은 지난 7월 27일 청주서부경찰서 박광일형사가 7월 23일 충북기독교청년연합회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기청협수석위원장 김성구씨를 구타한 사건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물파손과 폭력을 휘두른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즉각 징계처벌하라!” 등 3개항을 주장했다.

서울 미술공동체 등 성명발표-정릉「민중벽화」파괴사건

서울 미술공동체 회원들은 8월 3일 정릉「민중벽화」파괴 및 화가입건과 관련 미술공동체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3일에는 벽화제작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4일, 민족미술협의회 도시벽화 문제대책위원회도 비슷한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본 협의회는 최근 가중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구면 속에서 화가 이은홍씨의 구속과 신촌벽화 파괴 등을 목도 했었다. 이 명백한 불법적 미술탄압이 미술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의 일환임을 확인케된 지금 또다시 화가 당사자의집 담벽에 제작되던 작품 ‘상생도’의 폭력적 파괴를 접하게 된것이다.”라며 예술 창작물에 대한 이러한 당국의 자의적 판단과 폭력적 파괴는 분명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동사무소, 구청, 경찰의 무분별한 행위는 사유재산에 대한 분명한 침해이다.”라고 밝히고 “유연복씨등 4명의 화가를 즉각 석방하라”등 4개항을 주장했다.

지난 26일부터 미술공동체 회원인 유연복씨는 모교인 홍대 서양화과 동문 4명과 함께 정릉2동 소재 자택 담벽에 벽화제작을 시작했는데 성북경찰서 측은 8월 2일·성북구청직원, 성북서전경 1개소대와 6대의 차를 동원, 70여명이 강제로 벽화를 파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벽화제작자, 미술공동체회원 등과 한때 실랑이가 빚어졌었다. 2일 제작자 5명이 벽화복구를 시작, 3일 다시 파괴되고 제작자들이 강제 연행되었다가 4일 입건되었으며, 6일현재 불구속입건된 상태이다.

당국은 “벽화에 왜 하필이면 진달래꽃이 들어갔느냐”고 트집을 잡았으며 춤추는 남녀농부의 벽화는 “민중혁명의 표상인 해방춤이다.”또 “춤추는 농부 벽화의 뒷 배경중 윗 부분인 붉은 색이 아래로 약간 내려온 것은 적화통일을 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냐”는 등의 터무니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유씨는 오래전부터 벽화제작에 대한 소망을 가져왔으며 마침 벽도 낫았고 20여년간 살아온 동네에서 자신이 수업해온 솜씨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함이었으며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40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신노동자 김남용씨

지난 6월 21일 회사사무실에서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와(배차 이동)인간적인 멸시에 분신으로 항거한 전북여객주식회사 김남용씨()는 40일째 예수병원 중환자실에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당황한 회사측과 당국은 정보요원을 병원 환자앞에 상주시켜 외부인과의 면회를 일체 금하고 있으며 의사나 간호원들에게도 합구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병문안을 하려던 목사·신부·민주인사들을 가족들로 하여금 문전에서 쫓아내게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김남용씨를 살리기 위한 구명위원회(위원장:은명기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전단(구명회보)을 만들고 가두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 위

【서울대·고대생 300여명】 서울대 고려대 학생등 3백여명은 2일 오후 구로구 개봉2동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서울대 자민투 명의의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유인물을 통해 △미제의 정치음모 개헌특위 분쇄하자. △양담배 수입 강요하는 미국인들을 몰아내자. △미제의 경제침략 저지하여 자립경제 이룩하자. △헌정권과 타협하는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등의 7개항을 주장했다. 이 날 시위로 전경 호송버스 한대의 내부가 전소되었으며 다수의 학생과 전경이 부상했다.

【경희대생】 1일 오후 종로2가에서 경희대생 안필준씨()등 4명이 「성고문 타도」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9개대생 1천여명】 서울대, 고대 등 9개대생 1천여명이 1일 오후 고대본관 앞 광장에 모여 「민중기만하는 헌법특위 분쇄와 미제의 경제침탈 저지를 위한 애국청년학도 총궐기대회」를 갖고 성

조기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 날 「애국 청년학도 공동투쟁선언문」 등 4 종류의 유인물을 통해 자민투·민민투의 관념이론 논쟁을 종식하고 조국과 민중을 위해 실천투쟁을 해 나갈것」을 밝히고 △헌특분쇄 △경제침략 자행하는 미제축출 등 10개항을 주장했다. 이 날 시위중 이왕재씨 ()가 최루탄에 맞아 오른팔이 부러지는 등 학생 12명이 다쳤다.

【경희대생 1백명】 경희대생 1백여명은 31일 교내에서 「성고문 및 수입개방 저지 실천규탄대회」를 갖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상계동파출소 앞】 3일 오후 상계동 파출소 앞에서 고대생 등 17개대생 2백여명이 “철거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명동성당청년연합회회원】 명청연합회원 60 여명은 2일 오후 명동성당 입구에서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5개대생 2백여명】 성대등 5개대생 2백여명은 4일 성대문과대 앞에서 전 민민학련 북부지역평의회를 가지 뒤 격렬한 교내시위를 벌였다.

△ 8월 7일 오후 2시 30 분경 대성고무노동자 50 여명이 “노동자의 생존권 보상하라” “한일합섬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구 속

【상계동 전철역 앞 시위】 김현욱 ()씨가 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태능경찰서에 구속.

선 고

김경숙 () - 징 1년	홍성관 () - 징 1년 집유 2년
온태희 () - 징 1년 6월 집유 2년	김경식 () - " "
송민정 () - 징 1년 집유 2년	문미숙 () - 징 1년 6월 집유 2년
김교홍 () - " "	최인호 () - " "
강성중 () - " "	신정기 () - 징 1년 집유 2년
이병철 () - 징 1년	이상용 () - " "
장순용 () - 징 1년 6월 집유 2년	김진균 () - " "
황효정 () - 징 1년 집유 2년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씨 ()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알림】

△ 기독교청년협의회 (EYC) 사무실이 706호에서 810호로 이전.

△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는 8월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하여 회장에 박신철씨 ()의 모친인 임기란씨를 선임.

△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부산지구 EYC, 인권위 등은 오는 8월 10일 (일) 오후 7시 부산시 보수동 중부교회 (기장)에서 「성고문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